

人生 哲學者「딜타이」

그의 生誕 百週年을 보내면서(完)

田元培

(四) 世觀의 類型化

딜타이는 精神 科學의 本質과 基礎에 關한 問題에서 出發하여 哲學自體의 本質에 關한 問題에까지 到達하였다. 딜타이에 依하면 哲學은 世界觀이다. 그런데 世界觀은 모두 個人的 文化的 生活聯關과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哲學的 世界觀宗教的 世界觀, 藝術的 世界觀은 하나도 人間生活의 表現 아닌것이 없다.

『世界觀의 最後의 根底는 人間生活이다. 그리고 딜타이에 依하면 世界觀은 單純히 思惟의 產物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우리들 人間의 生活態度, 生活經驗, 精神的 全體構造에서 發出하는것이다. 哲學이나 宗教나 藝術作品은 모두 다 概念的 思惟에다가 아니라 이러한 概念的 思惟를 生産하는 人間의 全體生命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人生觀과 世界觀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딜타이는 哲學의 本質을 人間의 歷史的 社會的 事實로 본 뒤에 歷史上에 現出한 모든 哲學體系의 相剋, 卽 世界觀鬭爭의 意味를 探究하고 따라서 世界觀으로서의 哲學의 主要形態를 人間의 精神的 本質에 依하여 세 가지로 類型化하였으니, 卽 自然主義, 自由 理想 主義, 客觀的 理想主義가 그것이다.

一, 自然主義

人間은 自然이 制約을 받고 있는 存在다. 人間의 肉體는 外部의 世界와 같이 自然 法則의 支配를 받고 있는 自然의 一環이다. 人間의 肉體的 狀□性, 人間의 動物的 本能은 人間의 生活感情을 規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人生觀의 歷史는 人間의 歷史와 같이 긴 것이다. 이 人生觀은 人間을 動物的 本能的 滿足과 外界에 對한 服從의 連鎖過程으로 觀察하는것이니 이러한 人生觀은 어느 民族이든지 한때는 다가치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人生觀이 哲學化할때 거기에 비로소 世界觀으로서의 自然主義가 成立하는것이다.

『生命은 自然의 一部分이다. 自然過程만이 唯一한 現實이요. 또 現實의 全部 일지며 自然 以外에 아무 것도 없다. 精神生活이라는 것은 다만 形式的으로 만 이 自然속에 包含되어있는 諸屬性의 意識으로서 物質的 自然과 區別되는 것이요. 內容的으로 空虛한 이 意識의 規定性은 自然 因果態에 依하여 物質的 現實속에서 露出하는것이다.』이것이 自然 主義世界觀의 理論이다. 이 自然主義가 認識論에 있어서는 感覺主義의 形態를 取하고 形而上學에 있어서는 唯物論이란 形態를 取한다. 딜타이는 이 自然 主義的 世界觀의 代表者로서 데모크리토스·에피크로스·북크레티우스·프로타고라스·흠 등을指摘하였다.

우리는 自然主義를 認識論과 形而上學에 나누어서 一瞥하여 보기로 하자.

(A) 認識論

自然主義의 認識論의 根據는 以上에 말한바와 같이 感覺主義에 있다. 感覺主義는 吾人의 認識能力을 外部的 感性經驗에 歸屬시키고, 價値規定과 目的規定을 感性的 快不快속에 包含되어있는 價値規準에 歸屬시켰다. 그러므로 딜타이는『自然主義가 自然 主義的 精神觀의 哲學的 表現』이라고 말하였다. 딜타이에 依하면 感覺主義者는 人間의 內部經驗도 否認하며 또한 所與의 思惟的 結合도 否認한다. 그들은 物質的 秩序 中에서 現實의 法則的 聯關에 對한 認識의 基礎를 看取한다. 思惟의 諸屬性을 感性的 經驗의 一部分이라고 한다.

(B) 形而上學

自然 主義世界觀은 形而上學에 있어서는 機械主義의 形態를 取한다. 機械主義는 精神的 世界를 一定한 法則에 依하여 物質的 現實의 機械的 秩序 中에서 引出한다. 그러므로 이는 自然主義가 嚴密한 科學的 形式을 取할때에 成立하는 形而上學的 立場이다. 機械主義者는 宗教나 神話나 詩와같은 人間의 모든 內面性을 否認하고 運動의 原因을 宇宙物體의 各要素間에 歸屬시키며 精神的 事實을 一定한 方法으로써 이 宇宙物素에 歸屬시킨다.

이立場은 嚴密한 自然 科學的 思惟만이 近接할수있는 外部的 空間的 現實態의 土臺우에선만치 勢力을 가지고 있다. 이 立場에 있어서는 價値나 目的은 世界의 說明에 對하여 下等의 所用이 없는 것이요. 그는 自然過程의 盲目的 產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自由 理想 主義

自由 理想 主義는 希臘精神의 產物이다. 그는 아나크사고라스[아낙사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一聯의 哲學者들이 世界解釋의 原理로서 取한 立場이다.

이 세계觀은 플라톤이 自然關聯의 規制를 脫却한 概念的 思惟와 道德的 意欲을 發見한데서 出發하였다. 이 세계觀은 意識의 事實속에 一般共通的 基礎를 가지고 있는 一種의 英雄的 人間의 形而上學的 意識이다. 이 세계觀은 모든 所與態에 對한 精神의 獨自性を 主張하고 精神의 本質을 物理的 因果法則과 嚴密히 區別한다. 自發性和 自由 生動性は 이 세계觀의 根本性格이다. 그러나 이 세계觀의 原理는 科學的으로 一般에게 共通할수있도록 規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可能에서 可能으로 前進하는 無限한 辨證法은 있을지언정 問題의 解決에는 決코 到達할 수 없는 것이다. 家族과 國家의 法律속에 目的 意識的으로 作用하고있는 意志는 로-마思想에 들어가서 生命概念에 發展하여 羅馬의 人格的 理想主義를 出現시킴과 基督敎的 宗教意識은 이立 場의 原理를 모든 自然秩序에서 獨立한 精神의 超越性이라고 規定하였다. 칸트의 先驗論哲學도 어느 意味에 있어서는 이 理論的 意志를 一般 共通性있게 規定할라 한 것이 었다. 메누드·비란에서 벨그손에 이르는 佛蘭西의 理想主義 哲學, 獨逸의 先驗的 哲學의 諸潮流도 모두 이 意志의 새로운 姿態다. 이 意志의 形態와 論證에는 時代를 따라 變□이 있을지라도, 그 힘에 있어서는 永遠히 不滅할 것이다. 딜타이에 依하면 실텔은 이 自由理想主義의 詩人이요, 카라일은 그 預言者인 同時에 歷史家라 하였다.

(三) 客觀的 理想主義

認識論的 方法的 態度的 第三類型은 헤라크레이토스[헤라클레이토스]·스토아·보르노, 스피노차, 샤훅츠베리, 웨-링, 헤-겔 등의 確立한 人生觀이 세계觀에까지 高揚한 것이다.

一言으로서 弊之하면 이 세계觀은 觀想的이라 함이 適當 할 것이다. 觀想的 態度에 있어서는 人間生命의 □潤性, 價値, 幸福의 個人的 經驗 등이 一種의 普遍的 動感으로 擴大한다. 이 세계觀은 人間의 모든 不和를 萬物의 普遍的 □和속에 解消시킨다. 이 類型의 思想을 처음으로 哲學的 方法을 通하여 追考한이는 헤라크레이토스이니, 그는 觀想的 態度를 깊이 意識하고 그를 信仰의 人格化的 思惟에 對立시키었다.

스토아學派에 있어서는 全體의 宇宙觀이 支配하고 있었다. 거기에 있어서는 個物은 部分으로서 全體에 昭□하고 또 一個의 統一力으로 依하여 聯結한다. 스토아 學派는 抽象的 概念 統一下의 모든 事物의 從屬關係를 拋棄하고 特殊의 普遍에 對한 論理的 關係대신에 全體와 部分과의 有機的 關係를 定立하였다. 이 立場에서는 必然的으로 定命論的 世界觀이 成立한다. 웨그런고 하니 部分은 全體에 依하여 規定되고 諸現象의 聯關은 內面的 生命으로 把握되는 까닭이다.

딜타이는 以上과 같이 歷史上에 現出한 모든 世界觀을 類型化하였으니, 그 目的은 勿論 歷史現象의 本質을 그 聯關속에서 理解코자함에 잇었다. 自然主義나 自由 理想 主義나 客觀 理想主義는 모두 人間生活을 母胎로하고 産出된것이며 거기에는 어느 것을 勿論하고 人間性의 一面을 똑바로 反映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으로도 人生의 全面은 把握하지 못 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모두 一面性を 띠고 잇는 것이다.

生命은 언제든지 全體性を 가지고 發現하는것이나, 世界觀은 언제든지 思维的 限定으로써 그 一面을 表現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모든 世界觀은 正當한것으로되 모두 一面的이오. 따라서 抽象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結局 人生이나 世界의 全面을 觀照할 수 없는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有限과 無限과의 距리가 잇는 것이 아닐가?

그러나 우리는 有限을 通하여 無限을 抽象的 斷片을 通하여 具體的 全體를 窺視할수잇는 것이 아닐가?

마치 프리즘을 通過하는 太陽의 光線과 같이.